

변동성의 시대, 국가 경쟁력의 새 기준은



김희석

칼럼

며칠 전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를 관촬했다.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에 쓰인 작품이다. 21세기인 지금에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오만과 불안은 놀랄 만큼 낯설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인간보다 기술이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다. 사람은 달에 갔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며,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사결정까지 돕는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판단과 사회의 적응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정보를 마주하고, 더 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린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은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속도를 인간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잘 설명하는 단어중 하나는 '변동성(Volatility)'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시장이다. 최근 국내 증시는 하루걸러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 상승 국면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하락 국면

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연일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일도 벌어졌다.

투자자는 방향을 잡기 어렵고 기업은 투자시점을 결정하기 힘들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과감한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택하게 된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비용으로 이어진다.

기후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올 여름 유럽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고,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낸 지역에서도 냉방시설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 역시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직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미·중 경쟁은 공급망을 흔들고, 관세와 지정학적 갈등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과거에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오래전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위험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그 확률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성장률이 있었다. 성장률이 높으면 성공이고 낮으면 실패라는 인식이 강했다. 성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만큼이나 변동성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기업은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고 환율과 금리, 에너지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게 된다. 소비자도 지갑을 닫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는 도전보다 관망을 선택한다.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공급망을 다변화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정책은 탄소 감축뿐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와 전력망,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업은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투자한다. 국민도 제도가 일관될 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곤란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vbkim11@metroseoul.co.kr

‘기다림’에도 이유는 필요하다



허정운

(자본시장부)

A “국내 반도체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팔까 말까 고민이야.” / B “그래도 실적은 좋잖아. 조금만 버티까.” / A “뭘 믿고?”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 속에서 투자자들이 던지는 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도 널뛰는 주가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시장은 미래보다 불안에 더 민감했다.

AI 경쟁에서 투자를 늦춰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반도체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투자를 멈출 수 없다. HBM과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도 없다. 하지만 시장이 미래 투자 이야기만으로 움직

이는 것도 아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청사진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특별배당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배당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앞으로 어떤 원천으로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주주와 성과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결국 투자자는 실적보다 '약속'을 보고 버틴다.

주주환원을 '투자의 반대말'처럼 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연구개발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반대로 연구개발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도 주주환원과 자본적지출이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성장 산업에서는 투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외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주주와의 약속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일본도 기업가치 제고 정책 이후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며 시장의 평가를 높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도 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활용은 여전히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보다 기업의 태도를 본다. 좋은 실적은 한 분기의 성과일 수 있지만,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이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시장이 가장 흔들릴 때도 “이 회사라면 믿고 기다려볼 만하다”는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투자와 주주환원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기업의 미래와 시장의 신뢰를 함께 키우는 두 개의 축이다.

/zelkova@

김상회의四季

백중재와 환지본처



선덕여왕의 지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 불교적 세계관과 신앙으로 신라의 상류층들이 불교에 매료되어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선덕여왕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인간이 죽어서 돌아가는 천상세계로서 도리천을 지명한다. 도리천은 불교의 욕계 육천 중에 두번째 천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석천왕이 주관하는 곳이다. 중국적 개념으로는 옥황상제인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 또한 통솔하며 만사를 주관하는 곳이다. 또한, 그 도리천이 바로 신라의 낭산(朗山) 남쪽이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사람이 죽어서 아주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하늘로 가는 것이니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순히 세속의 지혜에만 국한되지 않은 선덕여왕의 생과 사에 대한 초월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여왕이 언급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환지본처(還地本處)를 뜻 것이다. 내가 있었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함은 존재로서의 본성 즉 자성이 그 자체로 완전했던 그 점으로 합입됨을 의미한다. 선덕여왕은 한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삶과 죽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본래는 한자리임을 아는 그런 각자(覺者)였던 여왕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원래 각자(覺者)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자각·각타(覺他)·각행 원만(覺行圓滿)의 세 덕을 갖춘 존재로서 곧 부처를 뜻하지만 세 간 격 의미로도 우주·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의혹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 그래서 깨달은 이, 각자라고 불리는 존재를 뜻하다. 49재나 백중재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니 일곱 번이 어렵다면 초재와 막 재라도 올려보는 정성을 가져 보기를 앙망드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할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9	9	8	1
9	8	1	2	8	9	6
8	2	1	9	6	8	9
2	9	6	8	1	9	8
1	9	8	8	2	8	9
2	8	9	6	9	1	2
8	8	9	1	1	6	9
6	1	9	8	2	8	9
9	2	8	9	8	1	2

1	9	6	2	8	9	8
2	2	8	9	8	9	1
9	6	8	8	1	9	2
1	8	9	8	9	2	8
8	2	2	8	1	9	9
6	9	2	1	9	8	2
8	8	6	9	2	9	2
2	2	1	8	8	9	6
9	9	8	2	6	1	2